■ 2025년도 ARKO Critics LAB 신진 비평가 선정

ㅇ 회의일시 : 2025년 7월 11일(금), 14:00~16:00
ㅇ 회의장소 : 아르코미술관 3층 위원회 회의실
ㅇ ARKO Critics LAB 운영위원회(가나다순) : 구나연, 서동진, 윤원화, 이진실, 우아름

본 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신진 비평가 발굴 및 예술비평 담론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기획사업으로 올해는 #공간, #미술사, #사회, #젠더를 주제로 한 4개 그룹의 연구활동 및 비평 집필에 참여할 8명의 신진 비평가를 선정하였다.

6월 16일(월)부터 20일 간 구글폼으로 지원신청을 받고, 이메일로 활동계획서, 비평 원고(최대 2편)를 제출한 신청자는 총 70명으로 그 중 행정결격(기한 내 필수서류 미제출) 18명을 제외한 52명을 선정 후보자로 압축했다.

보조금 교부가 아닌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동 연구의 가능성이 기대되는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해 심의 기준, 중점 고려 사항에 대해서 우선 논의하고, 이를 중심으로 그룹장과 5개월 간 교류·연구 활동이 기대되는 참가자를 선정했다. 다만, 공개모집을 통해 참가자를 선발하는 선정 방식을 고려하여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후보자 전수를 검토하고, 합의된 심의기준(충실성(40%), 참신성(30%), 역량(30%))에 따라 채점을 하는 등 문예기금 지원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밟았다.

신진 비평 공모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간 활동의 풍부함보다는 그로부터 연계된 연구 주제의 맥락, 주제 구성의 역량과 비평가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였고, 주제별 공동 연구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하여 랩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보이는 이들 중 그룹별 지원자간 주제의 배치를 고려하여 최종 선정하였다.

심사 과정에서 비평의 자의식과 활동 공간 및 여건에 대한 갈증, 비평의 외로움을 타개하고 연구를 심화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 구축의 갈증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수 지원자에게서 다양화된 미술 현장의 실무 경험에서 발원한 비평 의지가 보이는 한편, 비평보다는 이론적 글쓰기나 창작자, 기획자로서의 리서치에 가까운 시도가 많았다.

주제별 선정취지는 다음과 같다.

#공간

미술 관련 전공자 외에도 건축, 영상이론, 미학, 문화연구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지원자들이 연구 계획서를 보내와서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다. 개개인의 역량을 비교하여 한 줄로 세우기보다는, 크리틱랩을 여는 질문에 대해 어떤 비평적 입장을 가지고 응답하는가를 중점적으로 보았다. 공동 연구를 단순히 물질적 지원이나 네트워킹의 기회로만 접근한다면 크리틱랩이 아니라 크리틱 레지던시가 될 것이다. 앞으로 프로그램의 성격이 좀 더 명확해지기를 바란다.

#미술사

과거를 다시 호출한다는 것은 역사적 행위를 가치의 근거로 삼는 위험도 있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결여에 대한 인식이기도 하다. 이번 크리틱 랩에서 아방가르드라는 오랜 용어를 가져온 것도 오늘의 미술이 지닌 저돌적 실험에 대한 갈급함, 기술적 격변 속에서 찾아내야할 미술의 문제의식을 요청하기 위함이었다. 지원자들의 다양한 관점을 읽으며 비평 생산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지원자 대부분이 뛰어난 역량을 지녔음은 분명하다. 다만 #미술사의 경우, 한국 미술의 현장 속에서 아방가드르의 잔향을 함께 탐험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을 이번 연구의 동료로 삼았다.

#사회

동시대 시각예술 비평의 주된 경향은 '미학주의'라고 할 것이다. 정동, 감각, 경험에 쏠린 관심 역시 사회적 현상이지만 그러한 비평적 접근은 객관적 실재로서의 사회를 간과하기도 한다. 선정자들은 시각문화연구를 통해 이미지를 둘러싼 경험과 사회적 규정을 면밀하게 탐색하고자 시도한다. 연구와 비평이 행복하게 화해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만남을 통해 새로운 비평적 성과들이 산출되길 기대한다.

#젠더

시각예술비평에서 젠더의 문제는 트렌디한 이슈나 선택적 범주가 아니라고 주장하곤 하지만, 젠더가 연구 지원자들에게 덤비기 쉬운 주제는 아니었던 것 같다. 그래도 젠더의 테크놀로지라는 화두를 나름 해석하고 자기 만의 연구 주제를 명확히 하고 있는 지원자들이 있어서 반가웠다. 현장에서 역량을 인정받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비평가/기획자들이 다수 지원했는데 다방면의 경력과 역량보다는 밀도 있는 문제의식과 방향성에 중점을 두고 선정했다. 다양한 비평의 접점을 만들어볼 수 있는 활동을 기대한다.

길지 않은 공모 기간과 심도 깊은 질문에도 불구하고, 모집된 지원서의 상당수가 밀도 있는 문제의식과 공동 연구에의 필요성을 담고 있어, 본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다시금 환기하게 되었다. 더 많은 이들과 함께할 수 없는 아쉬움은 유의미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갈 의지로 갈음하며, 고민 끝에 최종 선정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다음 랩 공모를 계기로 둔 계속적인 관심을 기대한다.

선정자들이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본 사업에서 적극적으로 공동 연구를 펼쳐 나가며, 서로에게 유연하게 반응하면서 유의미한 연구를 펼치기를 기대한다. 본 프로그램 기간 중 발견하게 될 공동 연구의 방법이 앞으로의 랩으로도 연결될 수 있도록 공유하는 태도 또한 기대하는 바이다. 사회를 향한 진단, 미술 현장과 창작 활동에 관한 응답으로서의 비평이 본 생산될 수 있도록 운영위 또한 여러 차원에서 세심하게 관찰하고 반응하며 프로그램을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ARKO Critics LAB 운영위원회 일동